

33



매일 매일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때론 요구되는 것을 해야만 한다.

-윈스턴 처칠

양to the치기 33일차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오늘은 매점 이용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우리 학교는 올해 3월부터 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밖에 있는 매점까지 다녀오기에 쉬는 시간 10분은 너무 짧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늦어 벌점을 받은 학생은 133명이나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매점에 급히 달려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에 매점으로 뛰어가던 1학년 학생끼리 부딪쳐 다친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쉬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매점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현관이 쉬는 시간마다 더러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점심시간에는 현관 청소 당번 제도가 있으므로 매점 이용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수업에 늦은 학생들이 모두 매점에 가느라 늦었습니까?

찬성 1: 음, 그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다음 반대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 배가 고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교시 전후와 체육시간 직후에 매점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점심시간에만 매점을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매점은 유명무실한 곳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매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매점이 설치된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권리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점이 멀어 문제가 생긴다면 쉬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매점 이용 시간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매점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 하겠습니다. 개인의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도 됩니까?

반대 1: 안 됩니다.

찬성 2: 쉬는 시간에 매점을 이용해서 현관이 더러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 1: 음, 그것은 맞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죠.

(중략)

사회자: 양측의 입론과 확인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반대 측부터 반박을 하겠습니다.

반대 1: 숙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사회자: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측에 3분 동안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매점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현관의 청결 유지가 필요함을 근거로 매점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매점 이용 방식의 변화로 매점 이용상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찬성 측의 주장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매점이 설치된 취지를 근거로 찬성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의 생활환경에서 청결이 가장 중요하다.
- ②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③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 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숙의 시간에 상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반박은 입론과 확인 질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 중 자신의 편에 유리한 것들을 선별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토론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때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 이에 대해 양측에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①	찬성	수업에 늦는 원인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어.
②	찬성	쉬는 시간을 늘린다면 우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어. 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해.
③	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매점 이용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야 해.
④	반대	매점은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현재 파는 품목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팔아야 한다고 제안해야 해.
⑤	반대	우리의 입장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득해야 해.

양to the치기 33일차

[4~5] 다음은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담자: 다음으로 상담하실 분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다툰 일로 상담을 하려고요.

상담자: ㉠ 고등학생이시죠?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으신가 보군요.

민수: 네, 아파서 시험을 잘 못 본 은선이라는 친구가 우울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시험을 못 본 것은 당연한데 왜 우울해 하나며, 나 같으면 우울해 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심하게 화를 내더군요. 앞으로 잘되라는 뜻으로 한 말인데, 제가 대체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요? ㉡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상담자: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닌데, 친구가 화를 내서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 ㉢ 제 말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상담자: 그렇지요. ㉣ 따라서 민수 님의 충고가 친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민수: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자: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겠지요. [A]

민수: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구에게 우선 사과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할머니 댁에 와 있어서 친구를 만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자: ㉤ 우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과를 하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수: 네, 상담 감사합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라디오 상담이라는 공적인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대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화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하여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 ⑤ ㉤: 먼 대면 상황이 아니라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5. [A]를 참고할 때, '민수'가 '은선'에게 했어야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선아, 아프면 누구나 시험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 ② 은선아, 아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속상하겠다. 몸이 회복되면 다음 시험은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거야.
- ③ 은선아, 요즘 너를 보면 체력이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점심 시간마다 운동을 하면 어때? 나도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
- ④ 은선아, 속상하지? 그래도 너는 늘 나보다 시험을 잘 보잖아. 아마 이번에도 나보다 성적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울해 하지 않았으면 해.
- ⑤ 은선아, 아파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 많이 우울하겠다. 너는 우리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아.

양to the치기 33일차

[6~7] 다음은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한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I. 서론
 1.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 부족 현황
 2. 화력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II. 본론
 1. 문제의 원인 분석
 가.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나. 공공 기관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

2. 문제의 해결 방안
 가.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의 확충㉢
 나. 기업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 규제
 다. 가정의 무분별한 전기 에너지 사용㉣
 라. 홍보를 통한 가정의 절전 실천 유도

III. 결론: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의 심각성 강조㉤

7. <보기>를 활용하여 개요의 'II-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전문가 의견>
 전기 에너지 절약은 실천을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한 지식들이 바탕이 되어야 절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
 에너지 절약형 제품 구매 노력(2011년, 20대 이상)
 (단위: %)

	계	매우 노력한다	약간 노력한다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모르는 경우	100.0	6.4	19.0	42.2	32.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아는 경우	100.0	41.6	47.8	9.6	1.1

- ①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과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②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사용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등급 표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③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기 에너지 낭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도 대규모 정전 사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예비 전력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 방법을 홍보해야 한다. 특히, 전기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II-2-나'를 고려하여 '기업의 과도한 전기 에너지 사용'으로 수정한다.
- ③ ㉢은 'II-1-가'를 고려하여 '전기 에너지 생산 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으로 보완한다.
- ④ ㉣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⑤ ㉤은 '본론'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촉구'로 수정한다.

양to the치기 33일차

8. 다음은 명사 초청 특강에 대한 기사문을 쓰기 위한 기획 회의 결과와 기사문의 초고이다. 기획 회의 결과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기획 회의 결과

- ㉠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인상적인 '표제'를 작성하자.
- ㉡ 특강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되도록 '전문'을 구성하자.
- ㉢ 독자가 특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강사의 말을 '본문'에 인용하자.
- ㉣ 특강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본문'에 질의응답 내용을 삽입하자.
- ㉤ 특강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본문' 끝부분에 만족도 수치와 다음 특강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자.



표제 향수 없이 향기를 내뿜는 옷

부제 '이그 노벨상' 특강

전문 27일(금) 교내 강당에서 '이그 노벨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 교수(△△대학교 물리학과)의 '창조적 파괴'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본문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특강에서 ○○○ 교수는, 저절로 향기가 나는 신사복을 만들어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례로 특강을 시작했다. 이어서 다양한 수상 사례를 통해 어떻게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창조적 파괴'를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삶의 즐거움, 그것은 상상력입니다. 누구나 이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격려의 말로 특강을 끝맺었다. 특강을 통해 소개된 흥미로운 성과에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을 들은 2학년 □□□ 군은 "이번 강연을 통해 창조적 발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번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93점으로 1학기에 있었던 특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오는 10월에는 '영화 속 과학의 세계'를 주제로 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과제]
'시간 관리'에 대해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늦는 법이 없다. 시간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잡다한 일로 늘 바쁘지만 놓치는 것이 많다. 시간에 묶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 하지만 이 말이 일분일초의 여유도 없이 뻘뻘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다. 주어진 순간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곳곳에 비는 시간을 ㉡ 만들어져야 한다. 자동차와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에 공원이 필요하듯 우리의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한 것이다.

조금은 비워 두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백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다. ㉢ 인생의 기쁨은 자존감에 바탕을 둔 배려심에서 나온다. 목표를 향해 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에 ㉣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한 뜻밖의 상황에서 시간의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시간의 여백을 만드는 것은 현명한 삶을 위한 최고의 시간 관리라 할 수 있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대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시작한다.
- 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글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ㄷ.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ㄹ.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후 간략하게 의견을 덧붙여 글을 마무리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을 고려하여 뒷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②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 맞춤법을 고려하여 '맞닥뜨릴'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어.
- ⑤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양to the치기 33일차

11. <보기>를 고려하여 '동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 음의 동화]

- 받침 'ㄷ, ㅌ(ㅊ)'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ㆁ, ㅈ, ㅊ, ㅌ, ㅎ), ㅂ(ㅍ, ㅃ, ㅍ, ㅃ)'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한다. 단, 일부 한자어의 경우 예외가 있다.
-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미닫이'는 'ㄷ'이 모음 'ㅣ'에 동화되므로 [미다지]가 표준 발음이다.
- ② '닫는'은 'ㄷ'이 'ㄴ'에 동화되므로 [단는]이 표준 발음이다.
- ③ '침략'은 'ㄹ'이 'ㄹ'에 동화되므로 [침낙]이 표준 발음이다.
- ④ '칼날'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칼랄]이 표준 발음이다.
- ⑤ '신문'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심문]이 표준 발음이다.

12.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어문 규정에 맞음. ×: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신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실-(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ㄴ(어미)

㉡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정성을 쏟은(○)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내민(○)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ㄴ
부풀은(×)/부푼(○)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ㄴ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

- | | |
|-----------------|------------|
| ㉠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으-'가 삽입됨 |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양to the치기 33일차

14.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
감나무를	○	○	× ㉡
인내심을	○	○	× ㉢
수업을	○	×	× ㉣
첨단산업을	×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들: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아들: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6.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乃냉終중기 소리는 다시 첫소리를 ㉠쓰느니라 ㅁ을 입시울 쏘리 아래 ㉡니셔쓰면 입시울가비야툰소리 드외느니라 ㉢첫소리를 ㉣어울워 뿔디면 ㉤글바쓰라 냉終중기 소리도 훈가지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현대어 풀이]
나중 소리(중성)는 다시 첫소리(초성)를 쓴다. ㅁ을 입술 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첫소리를 아울러 쓰려면 나란히 써야 하니 나중 소리도 마찬가지로이다.

- ① ㉠: 첫음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② ㉡: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 ‘·’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 ⑤ ㉤: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해석

③②④④②
 ⑤⑤④①⑤
 ⑤①②③③
 ②

[1~3] (화법) 『수업 중 실시된 반대신문식 토론』

수업 중 매점 운영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로 학생들이 반대신문식 토론을 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1. [출제의도]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다.

‘찬성 1’은 수업에 늦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매점에 급히 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현관이 더러워지는 것을 근거로 매점 이용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하고 있다. 매점 이용 방식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매점의 설치 취지를 고려하는 것은 ‘반대 1’이다.

[오답풀이] ④ ‘반대 1’은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는 시간대를 설문조사하여 점심시간에만 매점을 이용하게 하면 매점이 학생들에게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출제의도] 공통되는 전제를 파악한다.

‘찬성 1’은 매점을 이용한 학생들이 수업에 늦어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1’은 배가 고프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점을 쉬는 시간마다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찬성 측은 매점 이용에 따른 문제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달리 반대 측은 당장의 제도 개선보다는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논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출제의도]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보기>는 토론의 참여자가 반박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양측은 속의 시간에 입론과 확인 질문의 내용들이 타당하지를 평가하고 내용을 선별하여 반박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반박 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이 매점에서 파는 품목의 다양화를 새롭게 제안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수업에 늦어 벌점을 받은 학생의 수는 객관적인 자료이지만, 반대 측의 확인 질문을 통해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반박 단계에서 이를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찬성 측은 쉬는 시간이 짧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반대 측에서도 쉬는 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반박 단계에서 쉬는 시간을 늘리는 일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야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파악하라는 조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오답풀이] ① 라디오 상담이라는 공적인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5. [출제의도] 공감 및 격려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아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속상하겠다.’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몸이 회복되면 다음 시험은 분명히 잘 볼 수 있을 거야.’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의 의미가 드러난다.

[오답풀이] ③ 공감과 위로의 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⑤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격려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작문 맥락에 따라 논설문을 통일성과 응집성 있게 조직한다.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에 관한 논설문 쓰기 과정에서 작문 내용을 조직한 것이다. ‘전기 에너지 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라는 글의 본론을 고려할 때 ㉠을 대체 에너지 개발의 추구로 수정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글의 주제인 ‘전기 에너지의 부족 문제’는 거리가 있다. ② ㉠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때 원인을 긴밀성 있게 조직하지 않았다. ③ ㉠은 ‘부족’과 ‘노후화’라는 두 가지 원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작문 맥락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여 논설문의 내용을 표현한다.

개요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홍보를 통한 가정의 절전 실천 유도이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통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기업과 가정의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하였다. ④는 내용상 개요에 맞지 않으며 <보기>의 자료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기사문의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한다.

기사의 형식적 요건과 작문 상황을 고려한 ‘기획회의’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다.

9. [출제의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 서술한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과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묻고 있으므로 대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을 시작하였다. 도시 속 공원이 필요하듯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내용을 표현하였다.

10. [출제의도] 글을 바르게 수정한다.

예상치 못한 일과 맞닥뜨릴 때 이를 해결할 수 있어 야만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 관리가 가치 있다는 진술의 이유나 근거에 해당하므로, ‘그러므로’라고 써야 문장 간의 관계가 명확하다. ‘또한’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할 때 사용한다.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을 이해한다.

<보기>는 음의 동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법이다. ‘신문’과 같은 조건에서 ‘ㄴ’이 ‘ㄷ’에 동화된다는 내용은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라고 볼 수 없다.

12.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구성 방법을 이해한다.

‘라고’는 직접 인용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므로 ‘가겠더라고’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가)에서 ‘라고’를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로 바꾼 것이다. (나)의 ‘환기’에는 이미 ‘공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 된다. (다)에서 ‘규명하고’를 넣은 것은 원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을 이해한다.

‘쏟다’의 활용형이 ‘쏟은’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이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할 때 ‘ㄷ’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듣다’의 활용형이 ‘들은’이라는 데에서 ‘ㄷ’이 ‘ㄹ’로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내밀다’의 활용형이 ‘내민’이고, ‘부풀다’의 활용형이 ‘부푼’이라는 데에서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면 ‘ㄹ’이 탈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와 쓰임을 안다.

‘키우다’뿐 아니라 ‘기르다’도 ‘인내심’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추상명사)과 결합할 수 있다.

[오답풀이]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돼지를 키우다’에서와 같이 ‘(동물)을 사육한다’는 공통 의미를 가지는 유의 관계에 있다(①). 그런데 유의어는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똑같은 않아서, 쓰임에 따라 의미 관계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기르다’와 ‘키우다’는 ‘감나무’ 같은 식물을 가리키는 말과 결합하여 ‘재배하다’는 의미로 쓰이며(②), ‘인내심’ 같은 단어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먹이다’에 비해 유의 관계의 폭이 넓다(⑤).

15. [출제의도] 시간 표현을 이해한다.

‘산 책’에서 ‘산’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고 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국어의 변천을 이해한다.

두음 법칙은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뜻한다. 따라서 ‘니서쓰면’의 ‘니’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쁘’의 초성에 ‘ㅂ’과 ‘ㅅ’이 함께 쓰인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뿔’에 ‘·’가 사용되었다. ④ 음성 모음인 ‘ㄱ’, ‘ㄷ’, ‘ㄹ’이 함께 사용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뽕’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